



2008 인쇄인 신년인사회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만들자”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공동 주최의 '2008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4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사회에는 신중석 문화관광부 출판산업팀장, 김종수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민재기 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양철우 교학사회장, 고수곤 인쇄연구소 이사장, 심용선 인천인쇄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조합 이사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전이사장, 구자만 경인쇄조합 전이사장, 박래수 제일인쇄조합 이사장, 김충진 한국전시조합 이사장, 전영표 상록문화정보연구소 이사장, 유근호 대전충남인쇄 전이사장 등 내빈과 많은 인쇄 및 인쇄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회는 홍우동·최창근 회장과 조정석이사장의 인사말, 축하 떡 절단, 민재기 인협명예 회장의 건배제의, 다과 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창립 60돌을 맞는 해인 동시에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발효의 원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해인 만큼 우리 인쇄가족은 더욱 화합하고 협력하여 백년대계의 비전을 일궈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인쇄금고의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 미래인쇄·첨단인쇄의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의 지원, 협동화사업장의 추진, 인쇄물류센터의 추진, 적정가에 의한 인쇄물 수의계약 또는 입찰제도, 인쇄물품질 향상사업, 전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공동 주최의 '2008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4일 오후 5시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인력 양성사업, 세계인쇄회의 및 인쇄물수출 지원사업, 가칭 세계인쇄박물관의 건립, 인쇄발전 5개년 진흥계획 수립 등은 업계의 발전을 가름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창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 정부가 출발하는 뜻 깊은 해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한 만큼 우리 모두 기대를 가져보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유가의 폭등과 환율의 불안, 미국 경기의 침체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 질수 있고 인쇄업계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물량감소, 인쇄용지와 잉크 등 원부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채산성이 더욱 악화돼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서는 조합의 재정안정과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변화의 파도의 중심에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으로 '인쇄산업'을 새롭게 부상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이미지제고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인쇄문화중국의 후예로서 우리 업계의 발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인쇄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왼쪽면,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우동 회장, 최창근 회장, 조정석 이사장. 오른쪽면, 신년인사를 나누고 있는 인쇄인들.



2008. 인쇄인 신년인사회